

학교급식 제공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집중 육성

10일까지 주민센터 신청 농업인들 소득향상 도모

여수시가 75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에 제공할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집중 육성에 나섰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수요는 많아졌으나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공급률이 낮아 이번

집중육성으로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육성하는 전략품목은 전년도 학교급식 품목 중 지역산 공급률이 50% 미만으로 다음품목에 한해 납품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납품비율 50% 미만 품목은 △방울토마토 △쪽파 △감자 △마늘 △토마토 △

단호박 △브로콜리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납품비율 20% 미만 품목은 △양배추 △상추 △오이 △참깨 △차조 △고구마로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납품비율 0% 품목은 △배추 △참외 △메론 △애호박 △딸기 △배 △고춧가루 외 29개 품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

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 체결 후 친환경인증을 획득해 납품이 가능한 농가로 오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48개 기관과 업무협약 여수시 드림스타트

여수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월 공개모집한 '2023년 맞춤형 서비스 수행' 4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시 관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학원비 및 학습지 지원 △꿈꾸는 책벌레 △우리나라 역사 바로알기 △빨주노초파남보 △예체능 지원 △개인·가족 심리 상담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담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 지속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5월부터 시작하던 사업을 2-3월로 앞당겨 추진하고 심리 상담 지원 횟수를 기존 30회에서 35회로 늘린다. 드림스타트 대상자와 연계가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 수시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낭만포차 7기 운영자 선발 여수시, 18명 결정

여수시의 대표 관광콘텐츠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7기 운영자 18명이 최종 결정됐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1차 서류 합격자 54명을 대상으로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음식 품평회를 통해 일반시민 5명, 청년층 7명, 사회적약자 3명, 포차 인근 지역민 3명 등 18명을 선발했다.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국 식품·조리 등 관련학과 대학교수 10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여수시는 최근 대표 관광콘텐츠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7기 운영자 선발을 위해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음식품평회를 가졌다. 심사결과 시민 5명, 청년층 7명, 사회적약자 3명, 포차인근 지역민 3명 등 18명을 선발했다. 여수시 제공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국 식품·조리 등 관련학과 대학교수 10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요리하고 평가위원들은 요리 과정과 완성품에 대한 요리 맛, 창의성, 대중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발된 제7기 운영자는 시와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음식 품평회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맛있는 음식은 물론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 운영자를 선발했다"며 "여수만의 특색과 희소감이 있는 낭만포차가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Hot-Place)로서 명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 이달 공사...11월 준공 예정



여수시 돌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은 올해 안으로 새로운 '돌산읍 죽포출장소'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 공사가 2월 착공에 들어가 11월 개소하게 된다. 죽포출장소는 향일암 일출제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준공된 지 33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돼 시는 신축 추진을 결정했다. 신축 건물은 2층 1동에 연면적 449.51㎡로 현 위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출장소에서 처리하던 민원업무는 공사기간 중 죽포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수시는 돌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 현황 점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여수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일 여수, 광양 지역의 주요 해양수산 정책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조장관은 오토도 일대 등대, 항로표지 시설과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광양항으로 자리를 옮겨 ㈜한양이 추진하고 있는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기반개량 추진현황 등 건설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은 한양이 SPC인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를 설립,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합에너지 물류시설 및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95만평(312만㎡) 규모의 부지 조성을 2026년까지 LNG 터미널, LNG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등 상부시설



조성을 2029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한양이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 부지 위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0만k 규모의 LNG 저장탱크 4기에 대한 시설 공사계획 승인이 완료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2030년까지 총 12기의 저장탱크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양의 동북아 LNG Hub 터미널은 LNG의 저장 공급은 물론 글로벌 LNG 트레이더 등 수요처들이 LNG를 저장, 반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LNG를 기반으로 수소, 암모니아 터미널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에는 지난 2021년 새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관련 전남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여수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가 조성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민간이 총 사업비 15조 5000만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묘도·여수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전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입주기업 및 발전공기업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 생태계를 갖춘 에너지 생산·유통·활용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한양 관계자는 "동북아 LNG Hub 터미널 관련 가스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규제개혁, 해상 파이프랙 건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여수 광양만권 송전 전력 계통 보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간재·여수=이경기 기자

"상습·고질 체납차량 꼼짝 마"... 변호판 영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750대 체납액은 29억 2300만원에 달한다. 5월말까지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박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탐색형 영

상시스템을 이용해 변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 3건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영치된 차량의 변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변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

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659-27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사항은 여수시 청 징수과(061-659-35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CCTV관제센터 요원 직무교육 여수시, 31명 대상

여수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3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관제요원 직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해 이태원사고를 계기로 재정비한 업무매뉴얼을 활용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 발생 시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 관제해 경찰과 공조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500대 CCTV는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돼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1기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제1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512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38개 과목으로 △양재, 제과제빵, 홈패션 등 기능 10개 과목 △노래교실, 문인화, 댄스스포츠 등 취미 17개 과목 △의류수선, 컴퓨터자격증, 영어회화 등 야간반 11개 과목이다. 모집인원은 512명이며 동일과목 미수강자를 대상으로 6일~7일 모집정원 50%를 우선모집한다. 8~10일 일반모집, 정원미달 과목에 대해서는 13~24일 추가 모집한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누구나 1인당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시스템'에서 여성문화회관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문인화, 서예, 생활요리(야간) 등 12개 과목은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주 2회 수업으로 월 1만원~1만5000원씩 3개월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자, 장애인 등은 1개 과목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여수=이경기 기자